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제의 관련 담화 발표

2022.9.8.(목) 10:00, 권영세 장관(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명절을 보내실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7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계신 4만여 분도 80~90대의 고령입니다.

남북당국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

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이 정기적으로 됐던 것은 대량의 쌀 지원이 있었던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부는 이런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유인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전통문을 먼저 보내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장관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요. 혹은 먼저 전통문을 보냈다가 하는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 시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지문 발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통지문에 대해서 거부한 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는 북한에 제의를 할 때 통지문 외에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뀐 느낌도 없지 않은데, 왜냐하면 남북대화가 재개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이런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있어왔잖아요. 이번에 이게 뭔가, 지금과 같은 교착 국면에서 먼저 제안하시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방금 담화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계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고 제안하게 된 것이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어느 것에 전제적인 것이 되고 선후 관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서 다른 남북관계 문제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질문이 더 이상 없나요?

<질문> 회담 일자나 장소, 형식 등 희망을, 북한의 희망을 적극 고려한다고 하신 것은 북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 걸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북한이 북한 나름대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내용이든 의제든, 그다음에 형

식이든 장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의 희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코로나만 반드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의 제안을 북한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제안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했을 때 복안이나 대안 같은 건 있나요?

<답변>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겁니다.

<질문> 5월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전통문을 수령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게 이런 제안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 무슨 성이?

<질문>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산가족 문제가 향후에 '담대한 구상' 이 계획에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이산가족 문제는 담대한 구상과 병행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가고, 또 이산가

족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한쪽이 어느 다른 쪽의 수단적인 관계에 있든지, 선행하고 후행해야 된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개를 병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사에서 제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가 남북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중간 중간에 단절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방역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더라도 이 실제적인 상봉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적인 상황과 근본적인 상황을 다 포함해서 당국자 회담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제안을 한다면, 그 다른 제안을 했을 때 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오늘 전통문 보내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명의로 간 건지 누구의, 받는 측은 어떤지 금을 말씀,

<답변> 예?

<질문> 누구에게...

<답변> 저의 명의로 했고 상대방은 통전부장 이선권을 상대방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평통은 지금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선권을 상대로 했습니다.

<질문> 북한으로부터 정부가 파악한 가장 최신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그게 언제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담이 만약에 북측의 호응으로 열리게 되면 의제를 더, 바로 확장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두 번째가,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잘 안 들렸는데.

<질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을 하면 회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의제를 확장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희망하는 북한과 여러 가지, 우선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산가족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회담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최소한 이 정부 출범하고는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일단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라서 거래를 하면 안 되

겠지만 혹시라도 회담 과정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이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제안이 어떤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연결이 돼서 간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 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답변> 대통령실과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화가 성사돼서 그 계기에 다른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그게 무슨 조건 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되면, 물론 북한의 호응이 먼저이긴 합니다만 카운터파트는 통전부장으로 상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평통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답변> 예, 저희가 통전부장을 상대로 통지문도 보내고 대화 제의도 하는 겁니다.

<질문> 아직 회담이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일회성 상봉 행사는 지양하시겠다 그러셔서 혹시...

<답변> 일회성인 것을 피하겠다는 것보다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례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질문> 정례적인 상봉 행사를 그러면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러니까 화상상봉이라든지, 편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화상상봉 문제라든지, 고향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남북 간에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특히 화상상봉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화상상봉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조금, 제가 악의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대면, 직접 대면 상봉하는 것을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인 부분도 사실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끝>